

#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 ‘선진과학기술문화대국’

글 | 김기형 \_ 초대 과기부 장관

지난 6월 28일, 필자는 장백산에 올라 북한 땅의 백두산과 천지를 조망하고 산에서 내려와서는 29세의 젊은 나이로 망국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천재시인 윤동주 기념비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있었다. 묵념을 하는 동안 반세기 넘는 대한민국의 기구한 운세가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식민지 일제시대와 8.15 광복, 미군정 3년, 38선 이남에 UN감시하에 세워진 대한민국, 6.25전쟁 3년, 휴전, 4.19혁명, 5.16혁명, 고도 산업화 시대, 박대통령 암살, 민주화시대, 세계화시대... 한없이 새로운 역사의 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첨단기술, IT, BT, NT, CT, ET, ST 등에 둘러싸여서 살게 되었다.

10월 9일 북한은 드디어 핵폭탄 실험으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온 세계를 흔들어 버렸다. 한반도가 핵지역이 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1968년 김일성 주석이 함흥에 있는 과학원함흥분원에서 행한 비밀연설이 기점이라는 설이 있다. 그 내용은 “동지들은 하루 속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 생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였다. 북한은 지난 38년 동안 핵개발을 지속했던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열중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빈곤을 극복하고 우리가 만든 반도체, 휴대전화, LCD, PDP, TV, 자동차, 조선, 철강들이 세계시장을 누비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11월 9일 발간된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2006년’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소득(GNI)은 2만499달러였다. 그러나 삶의 질은 세계 순위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였으며, 아이슬란드,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캐나다, 일본,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가 10위권에 들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과욕을 부리지도 말고 온 국민의

삶의 질을 10위권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

### 2015년내 세계 5위 경제·과학 대국 만들자

우리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은 세계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반도국가로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들의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건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급기야 36년이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도 하였다. 21세기의 한국은 과거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해서 안된다는 굳은 의지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독립하였으나 100여개의 나라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이 공업화, 과학화에 성공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 과학기술 대국으로 성장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째 원인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우리 국민의 뛰어난 자질과 소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국민은 학문을 존중하는 민족이었다. 다만 성리학을 존중하고 실학, 즉 오늘의 과학기술을 천시하였던 까닭에 세계의 진운에 늦어져 국력을 기르지 못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6.25전쟁의 참해와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중진국의 선두에서 산업화, 공업화에 성공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기축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다. 온 국민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신나게 움직였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한석봉이나 이윤곡의 자당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유난히 학문을 좋아하는 전통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 빈곤 속에서 굶어가면서도 자녀를 대학에 보낸 학부모의 교육열이 우리 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후진국들의 공통점은 문맹률이 높고 우리 학부모들과 같은 자식교육열이 없다.

LPGA에서 우리 젊은 남자들이 일본이나 중국 남자들이 못해내는 우승을 매년마다 이룬 것도 부모의 교육열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과학기술수준이 일취월장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후원과 본인들의 노력 없이는 성취 불가능한 일이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이고 일류 브랜드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이다. 능력 있고 패기에 찬 젊은 인재 없이는 대기업도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일류상품을 만들어내는 대기업에 이공계 인재가 더욱 필요한 이 때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이웃 나라 중국의 대약진을 보자. 방대한 국토와 자원과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진 대국이 사회주의에 자유자본주의를 접목하여 매년 GNP 10% 성장에다 FDI(외국자본직접투자)가 전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철강, 섬유,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의 세계 제조공장으로 급성장하여 우리 나라의 제일 교역국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살 길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선진과학기술 산업문화국가가 되어 세계 일류상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중국에 근접하여서 운송비도 적게 들고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는 이점에다 중국의 싼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급변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교육제도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운영이 잘 되어 세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가 쏟아져 나오면 세계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한국의 문화국민의 품위가 높아지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물쇼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파리나 뉴욕처럼 운집할 것이다. 우리의 국력을 기르는 기둥은 선진과학기술 진흥이니 정부나 교육계가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015년내에 세계 5위가 되는 국가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인 것은 분명하다. 온 국민이 정보시대에 대비하고 과학문화가 생활화되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교육기관, 상공회의소, 복지기관들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력배양의 첩경이 되는 것이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필자는 수년 전 핀란드를 한 달 동안 시찰하면서 우리 나라가 갈 길의 한 표본을 얻게 되었다. 핀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서쪽으로는 노르웨이라는 강국 사이에 있는 북극지대 나

라이며, 인구도 우리 나라보다 적으나 GNP는 선진국 수준이고 정치는 여성대통령이 안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필자가 놀란 것은 전국이 수십미터되는 산림으로 덮여 있었는데 전부 계획산림이며 목재 펄프공장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숲이 많으니 목재 도둑이 있을 것 같다'고 질문하니 '나무를 사주지 않는데 왜 도둑질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또한, 마을마다 직업훈련소가 있어서 실업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나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춘 나라를 우리는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핀란드에는 '노키아'라는 휴대전화를 파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으나 이미 세계화되어 핀란드 지분은 1% 정도였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세계화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나라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를 뽑고 새로운 국운을 건 길에 서게 된다. 온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선진과학기술문화대국'을 설립하는 리더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 ㉮

## '새로운 길'

- 윤동주 -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여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